

■ 서평 ■

『8시간 vs 6시간-켈로그의 6시간 노동제  
1930~1985』, 벤자민 클라인 허니컷 저, 김승진  
역, 서울, 이후, 2011.

김 용 현

세계화는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그 가능성을 짓밟아버릴 거대 자본의 착취도 만들어내었다. 자본은 단선적인 성장과 발전만이 세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고 선언하면서, 이 논리를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대에 뒤쳐진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이 질서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주체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의 단선적인 발전 논리를 거부했던 과거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찾아내고, 이를 현대 사회에서 다시 재현할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 vs 6시간』에서 벤자민 클라인 허니컷(Benjamin Kline Hunnicutt)이 보여주는 켈로그사의 6시간 노동제는 세계화 속 자본의 착취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로서 다시 한번 주목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에서 촉발되기 시작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시도 중에서도, 켈로그사의 소유주 W.K 켈로그(W.K Kellogg)와 사장 루이스 J.브라운(Lewis J. Brown)에 의해 도입된 이 6시간제 노동은 새로운 노동환경의 가능성을 진단해보는 일종의 거대 실험이었다. 비록 이 장대한 실험은 50여년이 지난 1985년에 완전히 중단되면서 실패로 끝났지만, 이 6시간의 노동과 그에 수반되는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를 둘러싸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다양한 역사적 주체들의 반응은 인식의 전환에 대한 일종의 보고서가 될 수 있다. 이들의 인식이 변화해온 역사적인 궤적을 살펴보고, 그를 통하여 우리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현대 사회의 모습이 사실은 오랜 투쟁과 변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이 작업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불합리가 당연한 결과가 아니며, 인간의 노력에 의해 다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특히 이 책에서 논의되는 6시간 노동과 그로 인한 인식의 변화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불합리하게 파괴되고 있는 노동자의 삶을 다시 복구하는데 있어서 소중한 역사적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노동자, 기업, 정부를 위시한 수많은 역사적 주체들의 의견이 50년에 달하는 긴 시간동안 6시간제 노동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었고, 이런 환경은 켈로그의 6시간제 노동에 모순적이고 복잡한 면모를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립의 역사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핵심적인 요소는, 시급을 희생하여 노동자가 '자신의 시간'을 추가적으로 더 획득했다는 사실이다. 6시간제 노동으로 노동자가 획득한 2시간의 자기 시간은 '노동에서 벗어날 권리'의 표상이며, 현대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되어야만 하는 사항이다. 1930년부터 1985년까지 반세기에 걸쳐 이 노동자들의 2시간이 서서히 축소되고 폐지되어가는 과정은, 결국 노동을 인간 발전과 동일시하며 그것을 삶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였던 사회적 인식이 승리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인식이야말로 노동에 대한 복종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물질적 이익을 절대선으로 삼고, 이것에 어긋나는 모든 가치들을 억제하고 파괴하며 오늘날의 노동환경을 침식시켜버린 물질중심주의의 원천이었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노동에 소비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노동자 자신의 시간을 소유하려는 시도를 무가치하고 사소한 것으로 묘사하는 현대 사회의 언어적인 수사들은 켈로그에서 6시간제 노동을 반대했던 자들이 사용하였던 언어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6시간제 노동 속에서 나타난 '노동에서 벗어날

권리', 즉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적인 권리가 현대의 물질만능주의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다시 한번 논의되고, 궁극적으로는 부활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 논제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돌이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활력을 가진 담론으로 현대사회에 다시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6시간제 노동의 몇 가지 역사적인 성격을 돌이켜 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 첫 번째는 바로 6시간제 노동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연속성이다. 켈로그의 6시간제 노동의 사상적 근간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주장한, 경제 성장의 정상상태(stationary state)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노동 외부에서의 인간적 진보에 있었다. 밀은 기업의 생산력이 발전하여 그 이윤이 한계에 이르고 기본적인 생활이 충족될 경우, 노동시간이 감축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에서 해방된 노동자들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1920년대 자본주의의 호황기 속에서, 이 담론은 영속적인 경제성장의 중단과 시장관계에서의 해방을 요구하는 '해방적 자본주의'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나타나 켈로그의 6시간제 노동의 탄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6시간제 노동은 이렇게 자본주의의 발전과 병행되어 오랜 기간 역사적으로 논의되어온, '노동 외부의 중요성'이라는 담론의 연장선상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수용하였던 노동자들의 담론도 마찬가지다. 허니컷은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했던 노동자들의 의식이 18세기 말에서 19세기의 노동 쟁의들과 강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기의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실업 문제 등 노동 내부의 사항에 대해서만 투쟁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의 투쟁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열망이었으며, 이를 통해 노동과 작업규율에서 벗어난 자신의 시간과 그에 수반되는 정신적인 가치들, 즉 "비금전적인 진보"(P.92)를 획득하려 했던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6시간제 노동을 통해 초기 자본주의 시기의 문화적 가치들로 회귀하고자 했던 대한 노동자들의 열망은 노동의 역사를 "단조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를 찾아가는 역동적인 서사로 바꿔주는"(P.91)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6시간 노동제의 통시적인 역사성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특징인 담론으로서의 완전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6시간제 노동은 대공황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해 급조되거나, 기업주인 켈로그 개인의 급진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었다. 이 정책은 충분한 역사적인 합의를 갖추고 있었고, 노동에서 벗어난 진보라는 명확한 비전을 갖추고 있었으며, 내외부에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담론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 6시간제 노동을 20세기 중반이라는 어느 한 특정한 시기에 우연적으로 발생한 불완전한 담론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 제도는 시간이 지나며 ‘인간의 발전’을 기치로 내세운 8시간 노동제에 결국 자연스럽게 종속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6시간제 노동은 결코 그러한 직선적인 역사관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담론은 과거의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대안적 담론으로서 충분한 완전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노동을 삶의 중심에 놓는’ 8시간제 노동의 담론과 50년에 걸친 장시간의 대립을 유지할 정도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완전성에 주목할 때 비로소 노동자는 “현대 경제 질서의 외부에 존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p.102)을 부여받게 되며, 6시간제 노동도 ‘죽어버린’ 담론이 아니라 ‘잊혀졌을뿐인’ 담론으로서 현대 사회에 다시금 부활할 가능성을 부여 받는다.

6시간제 노동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역사적 특징은, 그 안에서 발휘되었던 노동자들의 주체성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켈로그의 6시간제 노동은 노동자들의 힘에 의해 쟁취된 것도 아니었으며 온전히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1930년대의 켈로그가 6시간제 노동을 주장한 이면에는, 작업장에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조의 활동과 ‘미국 정치에 보이는 사회주의적 경향’들을 민간 기업의 복지를 통한 ‘노동 바깥의 여가’의 실현을 통하여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기업의 의도를 뛰어넘어 자신이 얻어낸 시간에 대한 주체적인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허니컷은 6시간제 노동 하에서 여가를 통하여 전통적인 가치를 복원해내던 이 노동자들의 모습이야말로 E.P 톰슨(E.P

Thompson)이 묘사하였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자신의 족적을 남기는 주체적인 노동자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통계적인 사실로 분석한다면 노동자들의 추가적인 2시간은 정원 가꾸기, 병조림 만들기, 아이 돌보기 등 기존 가사일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노동들은, 기존의 허드렛일들과 달리 노동자가 주체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6시간제 노동제가 시행되던 1932년, 미 노동부 여성국은 켈로그의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시행한다. 이 인터뷰 속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추가로 얻은 2시간을,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자, ‘~을 할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주체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2시간의 여가시간에 행해졌던 노동은 공장에서의 반복적인 단순작업과도, 지겨운 가사일과도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노동자 스스로의 선택 하에 행해지면서, 이들에게 자신도 무언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보람을 부여하였다.

노동뿐만이 아니었다. 늘어난 여가시간을 통해, 노동자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행해왔던 놀이문화와 상호 교류를 유지시킬 수 있었다. 비록 경영진에 의한 여가시설의 증진이 이것을 유지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 교류 안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나타난다. 허니컷은 이러한 주체성을 6시간 노동제 하에서 일했던 은퇴 노동자들과의 인터뷰 속에서도 포착해낸다. 노동자들은 2시간의 여가를 활용하여 피아노를 배우거나, 새를 관찰하거나, 마을의 역사를 쓰는 활동에 매진하는 등, 주어진 업무를 무감각하게 수행할 뿐인 작업장의 노동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문화를 창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면에서, 1985년 켈로그의 6시간제가 최종적으로 폐지 되었을 때, 노동자들이 술집에서 마지막으로 치른 의식인 ‘6시간제 노동의 장례식’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창작해낸 수사적 언어들을 통해 치뤄진 이 마지막 행사는, ‘노동에서 벗어날 권리’를 통해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냈던 노동자들이 역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문화를

통해 그 권리의 소멸을 애도하는 의식이었다. 이 의식을 통하여 그들은 6시간제가 변화시켰던 노동자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추억하고, 일만을 삶의 중심에 놓는 ‘일돼지같은’ 노동의 질서에 대하여 신랄한 공격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허나, 과거의 사실을 온전히 현재에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1930년대 켈로그의 6시간 노동제가 가져왔던 ‘노동에서 벗어날 권리’가 그 모습 그대로 현재에 재현되는 것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켈로그에서 6시간제가 사라지는 50년의 역사는 산업의 발달로 인한 거대 소비사회가 활성화되어가는 역사이자, 노동자들이 누렸던 전통적인 여가가 ‘시시한’ 소비사회의 대중매체들에 의해 자본 주도적인 여가로 대체되어 가는 역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힘이 남아있는 한, 다른 형태로 이 담론이 부활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남아있다. 21세기의 노동자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매스미디어와 소비문화의 격렬한 공세 속에서도 그것을 거부하면서, 혹은 역으로 그것을 이용하면서, 전 세계에 걸쳐 자본 논리에서 벗어난 고유한 문화와 담론들을 창조하려는 시도를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노동환경과 그를 둘러싼 사회는 계속 변화했지만, 자신들의 목소리와 삶을 되찾으려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근대 초기 영국의 방직공장에서부터 30년대 미국의 켈로그를 거쳐 21세기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속되어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켈로그의 6시간제가 보여주었던 ‘노동에서 벗어날 권리’는 그 움직임을 가속시키는 기폭제의 역할로서, 다시금 현대사회에 부활하여 세계화된 자본에 대항할 새로운 대안으로 논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nh177@naver.com